

# [ 출처 제시와 인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출처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9.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26-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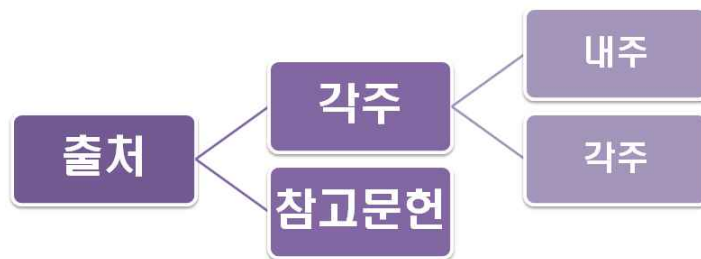
## 1.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 자료 등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의 주장이 든든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둘째 출처 제시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셋째 나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절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 할 수 있을까요?

출처는 주석과 참고문헌에 의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주석이란 자기 글에서 설명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설명이나 근거를 검증받기 위한 수단이자 학문의 성과, 학문적인 정직성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석의 종류로는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내주'가 있고, 본문 밖에서 표시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참고문헌이란 자신의 글에서 참고했거나 관계가 있는 저서, 논문, 기사 등의 목록으로, 글의 맨 끝에 실어 놓습니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작성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가.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

주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 수입니다.

- 1) 저서의 경우: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 수를 제시합니다.
  - (예)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1993, 122쪽
  - Barry Ulanov, A History of Jazz in America, New York: Viking Press, 1952, p.51.
- 2) 번역서의 경우: 글쓴이, 책이름,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 수를 제시합니다.
  - (예)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박영민 옮김, 한울, 1994, 42쪽.
- 3) 논문의 경우: 글쓴이, 논문 제목, 논문이 실린 책이나 잡지의 이름, 잡지의 권(호)수, 인용한 쪽수를 제시합니다.
  - (예) 오세은, 「어린이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 「비교문학」, 제37호, 2005, 5~27쪽.
  - Blommaert, Jan, "Writing as a Problem", Language in Society, Vol.33, 2004, Cambridge Univ. Press, pp.643~671.
- 4)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면 수를 제시합니다.
  - (예) "황우석교수가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 <조선일보>, 2006년 2월 20일 제 16면.
- 5) 인터넷 매체의 기사인 경우: 기사 제목, 매체이름, 작성 일시,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를 제시합니다.
  - (예) "유엔, 캄보디아판 '용산 사태'에 강력 비난", <프레시안>, 2008년 3월 12일.
  - <<http://pressian.com/article/>> (2009.1.29 - 접속날짜).
- 6) 사전류의 경우: 항목, 이름, 사전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를 적어줍니다. (항목 필자 이름이 있는 경우는 필자 이름을 맨 앞에 써 줍니다.)
  - (예) "샤머니즘",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2.

### 나. 참고문헌 작성법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 역시 학문분야나 학술단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국내 논저(가나다 순), 국외 논저(알파벳 순), 기타 자료의 순서로 구분하여 배열합니다. 참고문헌 작성요령은 주석의 경우와 같고 인용한 쪽 수를 명시하지 않으며, 국외 논저의 경우 글쓴이의 성을 이름 앞에 씁니다.

#### 1) 예시)

##### 가) 국내 논저

-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96.
- 하병안, 「인간학과 수학」, 「인간연구」 제7호,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4, 75~94쪽. 방브니스트, 에밀,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김현권 옮김, 한불문화사, 1988.

##### 나) 국외 논저

- Culler, Jonathan, The Pursuit of Sig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 Greence, Thomas M., "Poetry as Invocation", New Literary History, 1993, Summer.

##### 가) 기타 자료

- "한국 대중예술의 현주소", <문화일보>, 2005년 9월 21일자 제14면.
- 김창동, "문학이란 이런 것", <문학저널 홈페이지>, <[http://mhjc.co.kr/board/board.php?BOARD\\_CODE=BD\\_CHANG](http://mhjc.co.kr/board/board.php?BOARD_CODE=BD_CHANG)>, (2009. 2. 4).

## 2. 인용을 바르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글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이 있습니다. 직접인용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가져 오는 것을 말하고 간접인용은 원문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직접인용의 방법

- 1) 직접인용을 할 경우, 인용할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 ❑ 바르지 않은 사례

이들의 작품에 있어서는 신분적 여건이 자연을 노래한 연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강호가도에서 영증을 느꼈던 것은 '부패한 정치현실'이라는 사회의 한 층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서의 사회에 대해서는 화합에의 소망과 현실적 완성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들과 다른 점이다.<sup>5)</sup>이들이 영증을 느꼈던 것은 부조리한 현실사회였고, 그들이 자연을 찾은 것은 자연만이 그 부조리함이 없는 평등한 질서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5)성기옥,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틀」, 「고산문학」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215쪽.

위의 사례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 인용한 부분과 자신이 쓴 부분이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 바르게 된 사례

이들의 작품에 있어서는 신분적 여건이 자연을 노래한 연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강호가도에서 영증을 느꼈던 것은 '부패한 정치현실'이라는 사회의 한 층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상으로서의 사회에 대해서는 화합에의 소망과 현실적 완성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들과 다른 점이다."<sup>5)</sup>이들이 영증을 느꼈던 것은 부조리한 현실사회였고, 그들이 자연을 찾은 것은 자연만이 그 부조리함이 없는 평등한 질서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5)성기옥,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틀」, 「고산문학」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215쪽.

- 2) 직접인용문이 길 경우에는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듭니다. 이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예시**

거북의 머리가 나오듯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왕이 출현하게 되리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구지가>에 있어서 그 진술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인식된다. 거북에게 임금을 나타나게 하라고 요구하면 그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이른바 주술적 믿음이 <구지가>의 진술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바로 이 주술자들의 확고한 주술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타당성이 보장되고, 자연스럽게도 마땅한 주술적 호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위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구지가>의 화자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상호 교섭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은 ...(이하생략)

8)성기옥, 「<구지가>와 서정시의 관련양상」, 『울산어문논집』4, 1988, 55쪽.

**나. 간접인용의 방법**

- 1) 간접인용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시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 편의 시가 자아와 세계에 동일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시에서 시적 자아는 세계를 '너'로 불러들여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세계와 시적 자아 두 존재간의 합일을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를 자아화하는 시적 인식을 통하여, 세계를 '너'로서 파악하는 것은 시적 제시 형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sup>6)</sup>

6)홍길동, 「한국시가와 돈호법」, 울도출판사, 2006, 23쪽.

위와 같은 간접인용은 출처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마지막 문장만이 간접인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뒷글의 첫 문장 이외에는 모두 홍길동의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인용 시에 그 인용의 분량을 되도록 짧게 처리하거나, 인용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용표시구 : "누구는 ... 라고 말한다", '누구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

- 2) 간접인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과 함께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환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내용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존 스토리는 대중문화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텍스트나 실천행위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도 아니라고 본다.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이론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5)</sup>


5)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9, 33쪽.

위 사례는 원문의 표현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왔는데 간접인용을 하려면 자신의 말로 바꾸어 다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인기 있는 텍스트나 실천행위가 아니며, 또한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한 이론적 탐사의 대상인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또한 이론적 작업 그 자체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는 원문의 주요 용어들을 활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말로 다시 써서 좀 더 명료하게 원문의 요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된 사례**

존 스토리는 대중문화를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구성되는 열린 범주로 본다.<sup>5)</sup>

5) 존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9, 33쪽.

**다. 재인용의 방법**

- 1)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해야 할 때는 '재인용'이라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하승우의 글에 있는 홍세화의 글을 재인용할 경우 각주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면 됩니다.

 **예시**

홍세화에 따르면 민주주의 핵심인 토론문화가 한국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구성원들의 견해의 차이를 받아 들이고 공익과 진실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위로 타자의 의견을 억압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문화는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요원하다는 것이다.<sup>6)</sup>

6)홍세화, "왜 '왜냐면' 인가?", <한겨레신문>, 2002년 2월 18일자 제15면 하승우, 「희망의 사회 윤리 폴레랑스」, 책세상, 2003, 109쪽에서 재인용